



「내일의 팔도강산 관람객」 1971년

전시를 열며

OPENING THE EXHIBITION

대한민국은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성장**은 시기마다 오는 도전을 극복하며 성공 뿐만 아니라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가며 일구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라나는 세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와 기억을 담아 기획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하였습니다. 문화영화는 과거 극장에서 일반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 대한뉴스와 함께 의무 상영되거나, 지방에서 순회상영을 통해 대중과 만났던 것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제작되어 1940년대 제도화되어 해방 이후 1998년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입니다. 문화영화는 태생적으로 국정홍보수단이었지만 각 시기마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소개하고 있어 그 역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료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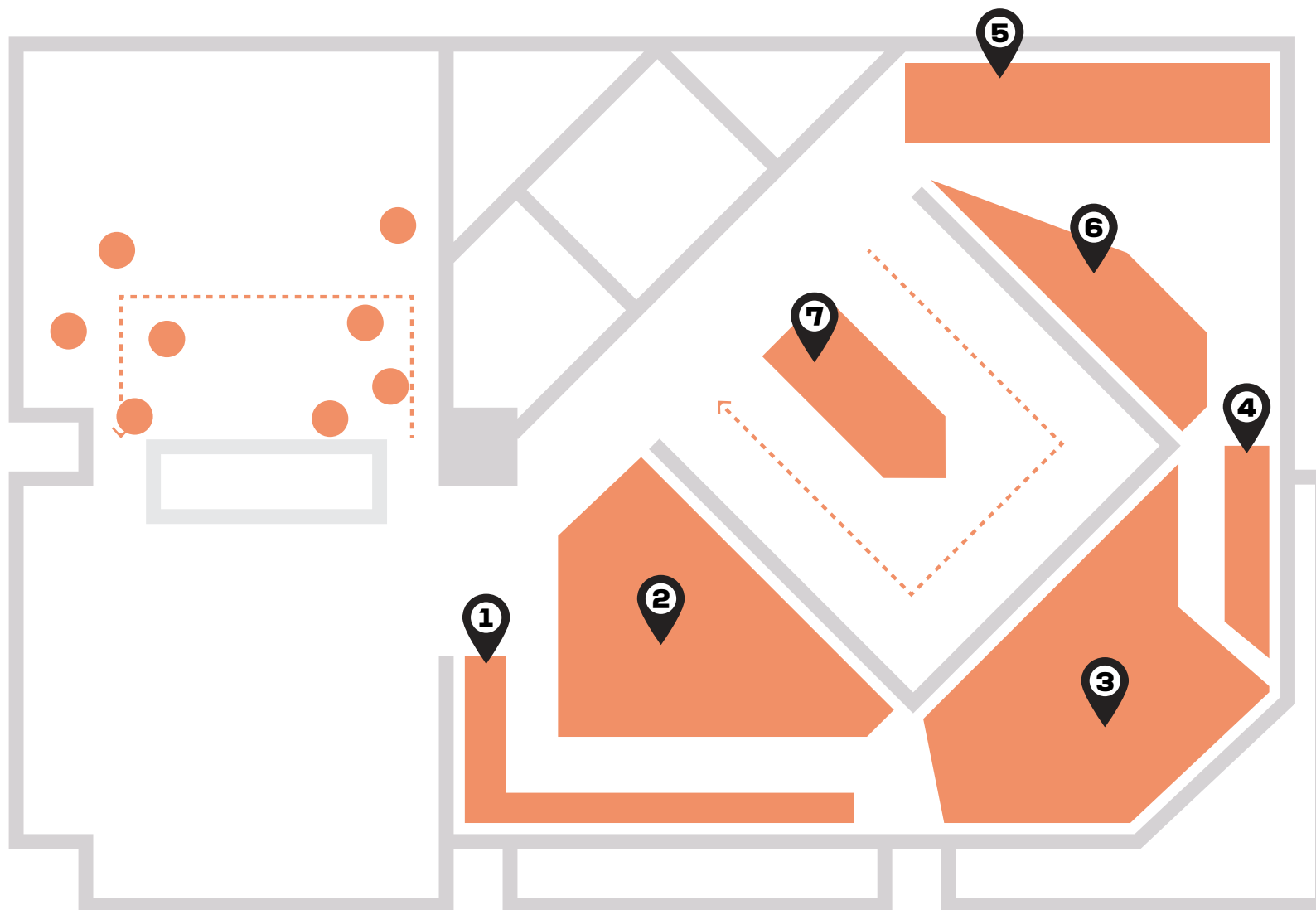
문화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한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록물로서 문화영화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전시장 둘러보기

- PART 1 새로운 출발**
전후 재건에 관한 문화영화
- PART 2 저축을 합시다**
60년대 저축 장려에 관한 문화영화
- PART 3 팔도강산**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고속도로에 관한 문화영화
- PART 4 어느 근로자의 하루**
70년대 건설노동자에 관한 문화영화

- PART 5 지구촌의 축제**
88서울올림픽과
93대전엑스포에 관한 문화영화
- PART 6 산업한국**
90년대 산업발전과
위기극복에 관한 문화영화
- PART 7 사진으로 보는 문화영화의 이면**

문화영화 동시상영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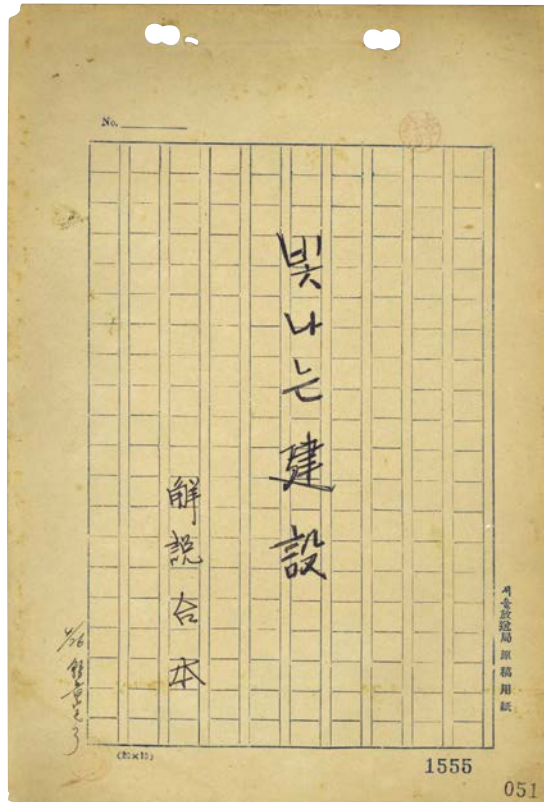


회수	제목	러닝타임
01	새로운 출발 1957 김영권 감독	00:11:00
02	독 : 발전은 협력에서 1959 양종해 감독	00:22:41
03	저축을 합시다 1962 김학수 감독	00:09:11
04	주부일기 1968 한탁성 감독	00:23:57
05	팔도강산 1967 배석인 감독	01:38:41
06	내일의 팔도강산 1971 강대철 감독	01:41:19
07	어느 근로자의 하루 1971 이광수 감독	00:08:19
08	중동의 한국인 1976 나한태 감독	00:37:41
09	지구촌의 축제 1988 도상선 감독	00:18:28
10	대전 너른 벌에 희망찬 기운 1959 이창호 감독	00:16:16
11	산업한국 1996 김향원 감독	00:16:15
12	다시 뛰자! 코리아! 1997 강명준 감독	00:09:38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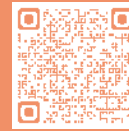
새로운 출발 전후 "재건"에 관한 문화영화

전쟁 후 대한민국의 풍경은 참담했다. 그러나 전쟁의 참상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은 '재건^{RECONSTRUCTION}'이라는 키워드로 관통 되었다. 폐허 속에서도 절망을 딛고 재건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다. 휴전 직후 문화영화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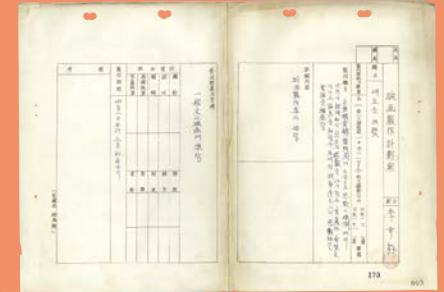
「빛나는 건설」 해설대본 1953년

휴전 직후 초기 서울의 거리를 재건하는
현장을 담은 문화영화 「빛나는 건설」
1954, 유정산 감독의 해설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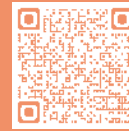


전쟁전사자 유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새로운 출발」 1957년 | 김영권 감독



「새로운 출발」 제작계획안 1957년



재건은 협력에서부터

「독 : 발전은 협력에서」
1959년 | 양종해 감독



영화의 소재가 된 실제 마을인 강원도 모전리의
사례를 소개하는 신문기사

「신고 7년! 새 낙토를 건설, 가난과 수탈로부터 온 마을 구출」
『경향신문』 | 1961년 7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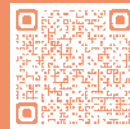
「발전은 협력에서」 세트 스케치 1959년

PART 02

저축을 합시다 60년대 "저축 장려"에 관한 문화영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¹⁹⁶²⁻¹⁹⁶⁶이 한창 추진되던 시기인 1965년 정부는 매달 25일을 '저축의 날'로 제정하고, 저축 장려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작된 문화영화들은 주로 대중과 친숙한 유명 배우를 전면 배치하거나 일반인 주부들의 실제 저축 수기를 재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저축을 합시다」 촬영현장 1965년



저축에 대한 담화

「저축을 합시다」
1965년 | 김학수 감독



영화의 소재가 된 김혜순 알뜰주부 사례를
소개하는 신문기사
「알뜰한 살림」 「경향신문」 | 1968년 04월 22일



알뜰한 주부의 저축이야기

「주부일기」
1968년 | 한탁성 감독



제1회 살림 잘하는
주부상 시상식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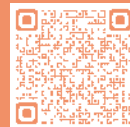
PART 03

팔도강산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고속도로에 관한 문화영화의
확장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막 시작한 1967년, 국립영화제작소는 문화영화로서 「팔도강산」을 개봉하였다. 노부부가 전국 팔도에서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딸들과 사위들을 찾아다니며 발전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직접 보게 된다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해당년도 최고 관객 수를 기록했다. 이후 「팔도강산」은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영화 이전의 영화라는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문화영화로서 가장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내일의 팔도강산」 관람객 1971년



딸들과 사위들을 찾아 팔도를 유람하다

「팔도강산」 1967년 | 배석인 감독



「팔도강산」 포스터
1967년 |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팔도강산」 해설대본
1967년



최희준 GRETEST HITS ALBUM
1973년

경계를 넘어, 고속도로를 달린다

「내일의 팔도강산」 1967년 | 강대철 감독



「내일의 팔도강산」 촬영현장 사진 이미지원 제공



PART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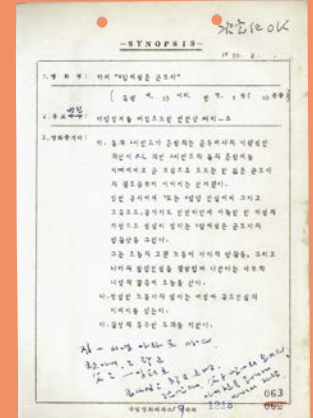
어느 근로자의 하루

70년대 건설 근로자에 관한
문화영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한 이래 우리의 공업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아져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고, 발전시설 및 경부·호남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1970년대에도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한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

어느 건설 근로자의 하루

「어느 근로자의 하루」 1970년 | 이광수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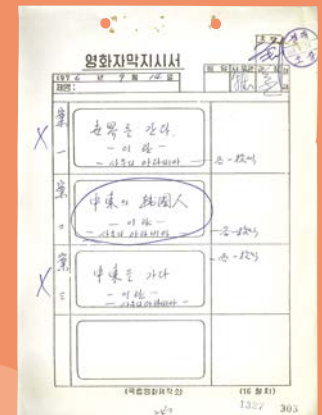


「어느 근로자의 하루」 시놉시스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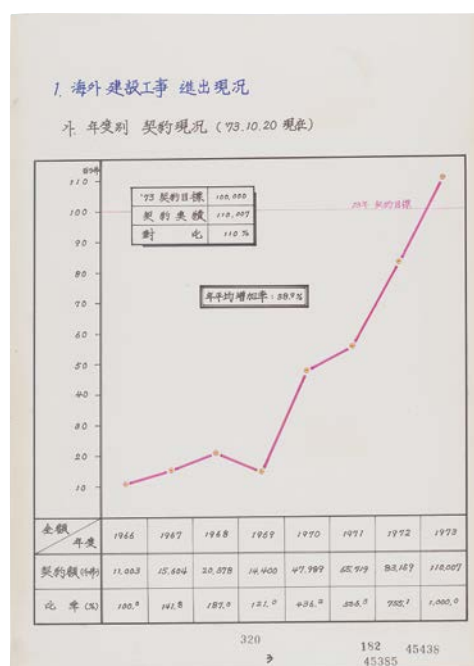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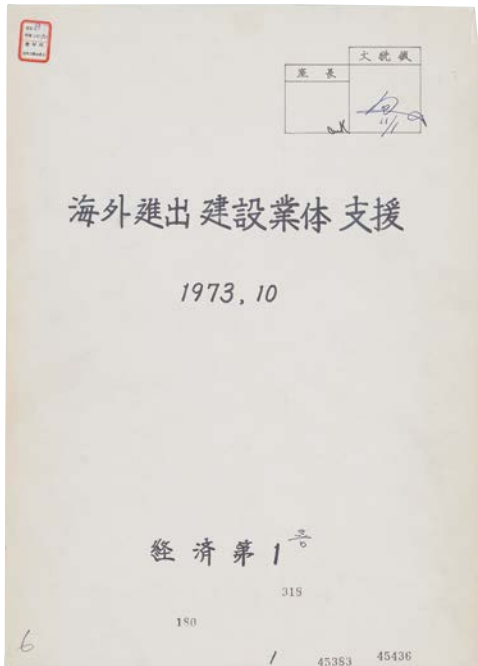


모래 바람 속,
중동 현장의
건설 근로자

「중동의 노동자」 1976년 | 나한태 감독



「중동의 노동자」 자막지시서 1976년



해외진출 건설사업 지원 1973년 | 대통령기록관 소장

PART 05

지구촌의 축제 국제적 축제 개최에 관한 문화영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지구촌의 축제」 1988년 | 도상선 감독



새로운 도약의 길

「대전 너른 별에 희망찬 기운」
1993년 | 이창호 감독



올림픽 개최가 경제에
미친 영향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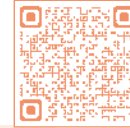


「대전 엑스포」 성과 확산
방안 1988년

PART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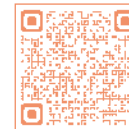
산업한국

90년대 산업발전과
위기 극복에 관한 문화영화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사

「산업한국」 1996년 | 김항원 감독



IMF사태 이후 취업난과 회사 경영의 위기를 겪는 부자이야기

「다시 뛴자! 코리아」 1997년 | 강명준 감독



PART 07

사진으로 보는 문화영화의 이면 제작과 촬영에 대하여



「흘러간 옛 노래」 촬영현장



촬영 현장, 미첼 카메라



문화영화 촬영현장



중앙청 행사 동시녹음 촬영 현장



자막 촬영



촬영 현장, 아이모 카메라



문화영화 촬영현장



녹음실의 녹음기사



『순회영사반 영화상영회 전경』 1961년

전시를 마치며

ENDING THE EXHIBITION

1959년에 제작된 문화영화 『독:발전은 협력에서』는 “집들은 허물어지고 농토는 황폐되어 마을 사람들은 구차한 살림살이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형편”의 대한민국을 보여줍니다. 이로부터 불과 37년 후, 1996년의 문화영화 『산업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경제성장과 복지로 균형된 국가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속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된 12편의 문화영화를 포함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2,400여 편의 문화영화는 그 경로 위 어딘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합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는 다시 올 수 없는 시절을 추억하고, 누군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며, 누군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대한민국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문화영화는 우리의 과거를 밝혀주는 귀중한 영상 사료이며 우리를 다른 시간, 장소, 사람과 연결짓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원래 35MM, 16MM 필름이나 VHS 형태로 제작되었던 문화영화는 훼손된 원본 매체의 보존, 복원처리와 고해상도 필름 스캐닝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영화가 교육, 연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